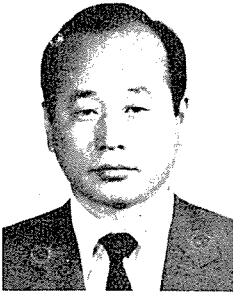


'86낙농시책방향



농수산부축산국 낙농초지과장 이인형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선하고 완전한 식품이라고 하면 우선 우유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유의 수급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수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업무를 떠난 자연인으로서 생각하여 볼때 우유만큼 좋은 식품은 없다고 본다.

그 첫째 이유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포유동물이 어릴때 즉 위가 발달하기 전부터 젖만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 다른 식품에 비하여 소화가 잘되고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는 흔히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지구력이 약하다고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들 한다.

이렇게 체력이 빈약한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가지로 분석하여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치즈 즉 우유 제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발생하는 순발력과 힘 및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힘이 생기고 운동 신경이 발달하여 모든 운동경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선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좋은 식품인 우유를 두고서 자연식이니 정력제이니 하는 것은 무조건 먹으면서 우유는 기피하는 경우를 볼때에 아직도 필자 자신이 국민에게 우유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지 못하였다는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도의 낙농시책 방향은 첫째 국민에게 우유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서 이를 한국유가공협회를 통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중에는 영양학 및 의학분야의 저명 인사를 초청한 강습회를 갖임과 동시에 우유와 분유를 이용한 요리방법과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중학생 마라톤대회와 텔레비, 라디오, 각 신문 및 잡지를 통하여 우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둘째는 국내외의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젖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전부 소비하지 못하고 지난해 연말 분유 재고가 5~6 천톤 수준에 이르러 있어 이의 소비와 생산량 감축을 위한 대책 추진을 실시중에 있다.

우유 생산 감축방안으로서는 능력이 낮은 젖소를 도태하므로써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개선으로 수익을 높이고 유도하여 증가되는 분유재고를 줄이고 젖소의 증식을 억제 하고저 하며 송아지에게 어미젖을 먹이게 하므로써 유업체에 납유하는 양을 줄이고 건강한 송아지를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고 분유의 처분을 위하여 각 유업체로 하여금 1kg 또는 500g 단위의 소포장을 제조하여 비수기인 겨울과 성수기인 봄에 걸쳐 판매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재고를 줄임과 동시에 경영압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해결 하고저 한다.

그리고 과거에 수입에 의존하던 대용유제조 원료인 분유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산 분유를 싯가로 구입하여 사용하므로써 재고 분유를 감축할 수 있으나 대용유의 가격 인상이 요인이 있어 대용유를 구입하여 송아지에게 급여하는 농가에게는 불리한 대책이라 하겠으나 농민 여러분께서 우유체화 현상 해결에 참여한다는 견지에서 대용유 대신 모유를 급여한다면 낙농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급식 문제는 지난 80년도 시작되어 지

난해에는 1일 평균 국민학교 2,100천명, 중등학교 370천명으로 총계 2,470천명이며, 금년에는 3,400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우유급식은 농수산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우유를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물론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도 추진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학생에게 우유를 먹게 함으로서 성장후에도 우유와 유제품을 먹을수 있는 체질을 키워 나감과 동시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체위 향상이라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축산진흥기금에서 35억원이라는 자금을 지원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우유급식의 양적인 증가를 생각하면 80년도에 불과 1일 7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2,470천명 수준으로 늘렸으며 81년부터 84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부족한 시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학교우유 급식문제는 우유의 운반과 냉장고에 보관 및 급식시간과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과의 위화감문제등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학교측이나 학부모께서 앞장서서 추진을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우유제품의 다양화와 소비자의 이용방법의 개선에 있어서 보다 발전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시판되는 우유와 유제품에는 그 종류가 몇가지에 불과하여 이런 상황하에서는 가정의 식생활과 직결되어 식량화가 되기가 어려우므로 음료로 마시는 시유도 지방함량 등

에 따른 여러가지 품질이 개발되어 황색인종인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15%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서 또는 가정에서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아이스크림과 빵 종류에도 분유가 많이 배합되고 제품도 다양화 되므로서 각 계층의 소비자가 기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유가 들어가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유제품은 70년대와 달리 최근에와서는 식탁에 식량으로서 변화되어가고 있으나 특수한 제품이라하여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소비를 억제 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유가 들어간 제품은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넷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수입을 금년에는 전체를 억제할 계획이다.

과거 81년부터 84년까지는 우유가 국내 생산으로는 부족하여 일부는 수입 충당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분유는 수입을 억제하고 기타 유제품도 불가피한 양만 수입을 하여 공급할 것이다.

다섯째는 본 우유지에는 맞지 않는 과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젖소는 풀을 주로 하여 먹

고 짖을 생산하는 가축인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가의 풀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소홀한 점도 많았으나 최근 몇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누구나 풀을 쌀 이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과정의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풀사료기반의 정착의 해로 정하고 초지 조성, 닭이작사료작물(논에 벼 벼후 목초재배), 청예사료작물재배(밭에 소먹이용 옥수수 등 재배)를 병행하여 강력히 확대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 근무자와 모든 지도소 직원을 교육요원화할 방침이다. 우유는 풀로부터 생산되는 풀이며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받쳐주는 식량인 것이다.

풀의 생산없이는 금후에는 경영 합리화를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능력이 좋은 젖소를 확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풀을 많이 생산하여 좋은 질의 것을 젖소에게 먹인다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곡물의 도입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금년도의 낙농시책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낙농인이 노력한다면 금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며 치즈의 맛을 아는 국민, 우유를 사랑하는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을가 한다.

